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4/33℃ 목포 23/30℃ 여수 24/29℃
단기 4343년 (음력 6월 1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39호 2판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옛 도청별관 부분보존 확정

54m 중 24m 철거…문화전당 가속도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이 부분보존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추진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추진단은 총 길이 54m에 이르는 별관 건물 가운데 왼쪽 24m를 철거하고 나머지 30m 부분만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6m 길이의 건물도 철거된다.

부분 보존될 별관의 나머지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가장 위험한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거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보강작업을 거쳐 건물만 보존된다. 또, 부분보존되는 별관과 위치가 일부 중복되는 어린이지식문화원은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위치가 조정된다.

추진단은 건물의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로 감안, 별관을 부분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장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관에 통로를 뚫는' 게이트 안(5월의 문)을 집중 검토했으나 건물의 구조가 너무나 취약한데다, 도청 별관 아래로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 등 위험요소가 너무 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 본관 쪽으로 별관의 일부를 보존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역시 터널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공사일정과 관련, 별관의 부분보존 방침이 구조보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오는 12월 기본설계 그리고 내년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보존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5·18부상자회와 시도민대책위원회, 진보연대 등 일부 5·18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추진단의 별관 부분보존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9일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열어 부분보존 안을 결정했다.

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는 추진단에 이메일을 보내 "부분보존 안은 별관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아시아문화광장과 5·18광장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그동안 별관 철거와 3분의 1 보존안, 게이트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지향했던 가치와 꿈을 아우르고 해소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안"이라며 "5·18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미래의 전당 안에서 살아 숨 쉴 문화적 가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대승적 판단과 지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별관 보존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쉽다, 그러나 잘싸웠다

U-20 여자월드컵 한국, 독일에 1대5 패

8월1일 3~4위전

한국 여자축구 사상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대회에서 '4강 신화'를 썼던 '태극소녀'들이 결승전 문턱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관련기사 18면〉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은 29일 밤 독일 보훔의 레비어파워 경기장에서 열린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독일과 준결승에서 지소연(19·한양여대)이 만회 골을 터뜨렸지만 파워와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5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3-4위전으로 밀린 한국은 콜롬비아-나이지리아 준결승에서 패한 팀과 오는 8월1일 오후 7시 빌레펠트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다.

/연합뉴스

정운찬 총리 사임…개각 급물살

정운찬 총리가 29일 국무총리직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반으로 예정된 개각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지금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사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밝힌 뒤 "모든 책임과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이제 국무총리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일을 이뤄내기에 10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한 "'3불 정책'이란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재 교육 시스템을 '3화 정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며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할 여건을 확고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자서전' 발간 ▶발췌 내용 6·7면

"내가 호남사람인 것 자랑스러웠다"

"87년 대선 때 나라도 양보했어야 했다" 소회도

"나는 내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차별받는 호남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못해 늘 가슴이 아팠다. 나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나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사랑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호남인으로서의 애환을 이렇게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이번 주말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무실에서 '김대중 자서전'(도서출판 삼인) 언론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자서전이 총 41회에 이르는 김 전 대통령의 구술 인터뷰, 생전 기록물 등을 토대로 김택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대표 집필했으며, 2009년 7월 병원 입원 전 김 전 대통령이 직접 교정 및 추가 구술을 해 발간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지난 1987년 대선 때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나라도 양보를 했어야 했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책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예로 들면서 '임동원·김용순' 명의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고 했지만 적극 설득해 결국 두 정상 명의로 선언문이 작성됐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대통령이 전라도 태생이라 그런지 무척 집요하군요"라고 농담을 던지자 김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전주 김씨 아니오. 일처리 좀 시원하게 합시다"라고 응수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제와 관련, 정·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제 하에서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노 대통령의 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규정한 뒤 정부의 반대로 읽지 못한 조사(弔辭)를 자서전에 실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2004년 8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대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며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건설회사에 재직할 때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냈다" "실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자서전은 1,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에는 출생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또 2권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퇴임 후 서거 직전까지가 담겨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자서전'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속 자율형 사립고 지정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공고 제2010 - 14호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단기간 유망상품/부품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1. 사업 목적

- 호남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권 역	지 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신재생에너지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 부품소재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육성사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 지원조건

구 분	중형	소형
주관기관 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제주도는 7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국비 (24개월 이내)	15억원 이상~ 40억원 이내	15억원 미만
국비 지원기준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서 참여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4. 지원분야

- 지원과제유형
  - 기술개발사업 (R&D) :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권 역	프로젝트명		세부과제명	비고
호남권	태양광	R&D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부품소재 개발 및 상용화 (자유공모)	RFP
	하이브리드카	R&D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부품 또는 모듈개발(자유공모)	RFP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및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honam.leading.or.kr) 참조

5. 신청자격

- 기술개발사업 (R&D)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증권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특이사항

프로젝트명	특이사항
하이브리드카	참여기관 :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가능

6.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 기술개발사업 (R&D)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사업내용의 적절성, 유망상품과의 연계정도) 및 향후 기대효과 (사업성공의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등
- 평가방법
  - 해당 프로젝트별 실태조사 후 발표평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세부과제별 RFP 참고

7.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 〈권역별 지원단〉 —→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태조사·발표평가)
7/30(금)		8/19(목)~8/23(월)		~ 8/31(화)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7. 30 (금) ~ 8. 23 (월), 18 : 00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원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8. 19 (목) ~ 8. 23 (월), 18 : 00
  - 신청서류와 함께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9.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및 제 11조
- 관련규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10. 기타사항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기업)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있음
  - 측정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없이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02) 6009 - 3764~8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권역	기관명	지원분야 (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호남권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 : //honam.leading.or.kr)	태양광	062)602-7163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하이브리드 자동차	062)602-7160	

MKE 지식경제부 KIAT LeadER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